

# 전기자동차, 모듈 평가시스템 구축

한국전기연구원, 추진모듈 평가 설비 개발 ... 고속 전동기 시험 개선

한국전기연구원은 국내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추진 전동기와 인버터 등 핵심 추진 모듈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월27일 발표했다.



시스템은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과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기술 연구회의 일반 연구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전기연구원 전동력연구센터 구대현 박사팀은 시험 부하용량과 최고 속도를 모두 만족하는 최고 사양의 전기자동차용 추진모듈 평가 설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축한 평가 시스템은 소형급 연속출력 60kW 1만 5000rpm, 중형급 150kW 1만5000rpm, 대형급 250kW 1만2000rpm 시리즈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전기자동차 고효율, 경량화를 위해 전동기 모터를 고속화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시험평가는 전기자동차 개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핵심 추진모듈인 인버터와 전동기는 성능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기관들이 보유한 장비는 고속 전동기 시험평가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대현 박사팀은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녹색성장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향상과 보급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2/28>